



무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서정분)는 20일, 무주 관내 아동·청소년지도자 40명을 대상으로 무주청소년수련관 체험활동실 및 향로산 휴양림에서 아동·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소진을 예방하고 슬기로운 지도 활동을 도우며 관내 청소년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관계 에너지 UP 힐링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를 진행했다.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부터 10년 이상 운영되는 무주 관내 아동·청소년지도자 대상 교육연수는 1부에서 TACA 교류 분석 사전검사를 통한 청소년지도자 개인의 자아 상태와 인생 태도 분석을 바탕으로 나를 바로 아는 기회를 통하여 청소년들과 주변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듣고, 수료증과 증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무주향토산휴양림에서 관계 에너지 UP 힐링을 위한 모노레일 탑승 및 향로봉 정상 주변 쓰레기 줍기와 보물찾기를 통하여 지역 내 환경정화와 힐링의 기회를 동시에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서정분 센터장은 "지난 16일은 세월호 희생자 8주기로 4월에 무주 관내 청소년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함께한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지도자의 희생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가 어려운 소진이 계속되는 코로나9 확산에서도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아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달하여 서로에게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근대5종 선수들, 전국대회서 활약

전북 근대5종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20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흥천에서 열린 제4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에서 전북은 일별부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에서 메달 사상에 성공했다.

먼저, 여자 일반부 경기에 나선 윤양지, 조선민 김보경으로 구성된 팀은 단체 2위와 릴레이 3위를 차지했다.

여자 고등부에 출전한 전북체고 김예나는 동메달을 획득했고, 단체와 릴레이에 나선 김예나, 김민주, 김민정은 각각 3위와 2위에 올랐다.

전북체중 박지원, 정지은, 임영은은 여자 중등부 텔레이 경기에서 3위를 기록했고, 남자 초등부의 최진우(지곡초)은 개인 2위를 기록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선운산농협, 원로조합원 장수사진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구)는 지난 19~20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고창농협과 선운산농협 원로조합원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5월 가정주간 행사를 일환으로 휴드림 행복나눔 장수사진 무료촬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NH농협 전북노조 박병철 위원장,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 선운산농협 김기우 조합장, 후원사인 (사) 우리농업지끼기 운동본부 노원신 국장과 고창·선운산농협의 원로조합원 289명이 함께했다.

후원사인 (사)우리농업지끼기 운동본부는 범농협의 임직원들이 매월 1,000원 이상의 후원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농협의 사회공헌단체로 매년 전국의 농촌현장을 찾아 다문화가정 후원행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로조합원 장수사진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알림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위한 장애인 문화콘서트 = 일시: 20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풍남문화광장,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화연구소,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참가자: 장애인 및 가족 환경, 문의: 286-6678, 291-6669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남원시, 장애인단체·시설 연계한 기념식 개최

남원시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물리적·정서적 고립을 겪는 장애인들의 누적된 피로감과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및 시설과 연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적장애인협회(회장 김현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장, 시의장, 각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비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로 푸른시절 팀에서 준비한 기타공연과 장애인들로 구성된 해피드림 팀에서 협창공연으로 막을 열고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자 1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남원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의 날 기념주간(20~26일)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간격을 좁혀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행복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없는 더



불어 행복한 남원 만들기를 위한 인식개선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은 "올해는 코로나 19로 큰 규모의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조촐한 기념식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느꼈을 소외감과 고립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무주 구천동관광특구상인회, 한마음 행사 개최

무주군 '(사)구천동관광특구상인연합회(회장 김국진 이하 구천동상인회)' 한마음행사가 20일 오전 11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걸맞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구천동 다목적광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9 여파로 3년간 중단됐던 덧인지 벚꽃의 끝자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단지 내 상인들의 친목 도모 및 건전한 상거래 정착과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진주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현직 군의원들과 도의원 그리고 '구천동상인회' 최태호 고문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별에 빛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 인식개선 집중홍보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시민과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인식개선을 위한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이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 설치 ▲관내 19개 주민센터 및 257개소 공동주택, 31개소 공공기관 등에 전단지와 포스터 전달 ▲안내방송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위반 시 법률에 따라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위·변조 등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산구에는 매년 3천여 건 이상 주차위반 민원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가 더 이상 권리가 아닌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의무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원, 위·변조 등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산구에는 매년 3천여 건 이상 주차위반 민원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가 더 이상 권리가 아닌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의무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진산업-초록우산재단, 특수교육학생에 마스크 기증

(주)화진산업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에 써 달라며 전북교育청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주)화진산업 이현철 대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구미희 본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북지사 양종주 지사장,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권희숙 센터장 등은 20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마스크 30,000장을 기탁했다. 전달받은 물품은 여름철에 착용하기 적절한 어린이용 마스크로, 이달 중 도내 특수학교 10개교 학생 300여 명에게 1인 평균 98장씩 전달될 예정이다.

이현철 대표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마스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ADT캡스, 우석대에 발전기금 1억원 출연

SK쉴더스(주) ADT캡스는 우석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20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임칠성 호남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SK쉴더스(주) ADT캡스는 앞으로 2년 동안 연 50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기금은 우석대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칠성 호남본부장은 "우석대학교의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복지재단-전북하나센터, 취약계층 지원 협약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립(이사장 이병관)과 전북하나센터(센터장 조정현)가 20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용 지원사업과 법률지원사업, 주민통합행사 등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에서 약 17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한 양 기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별금 및 지원 금융취약 북한이탈주민 금융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 될 것을 약속했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립 이사장은 "전주시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



으로 전주시 내 복지사각지대 별금·지원체계가 보다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립은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형 SOS긴급지원사업 ▲전주시립은행 ▲우리동네주거 공간개선사업 ▲복지생태계구축사업 ▲금융복지상담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새마을부녀회, 우크라이나 난민에 성금 쾌척

전주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모든 성금 2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시민의 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마을운동의 실천과제인 지구촌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각종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앞장서서 마련했다.

강영이 회장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소망한다"며 "각동 새마을부녀회원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전달한 성금이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국방시설본부 건설안전 교육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류호상)는 전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국방시설본부 전리제주시설단 기술공무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리제주시설단 군부대 교육관에서 열린 교육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주제로,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과 건설재해 발생 현황,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체계를 주요 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류호상 지사장은 "앞으로도 호남권 자체체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